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창세기 19:24-29
2026 년 10 월 25 일 오전 11 시

소돔 최후의 날

< 주여 도우소서 >

소돔 사람을 뜻하는 영어 단어 '소도마이트(Sodomite)'는 본래 소돔의 주민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후대에는 특정한 성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소돔은 성적인 타락으로 악명이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돔의 죄악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폭력과 불의가 만연하였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창 18:20-21).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부르짖음'입니다. 소돔에서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었으며, 그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소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살피시기 위해 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하자 롯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도 전에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창 19:5). 여기에서 '상관하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יָדָה)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야다는 본래 '알다'라는 뜻이지만, 문맥에 따라 성관계를 갖는다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끌어내어 집단으로 성폭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소돔 사람들의 행동은 성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9 하반절). 해를 가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나그네들을 짓밟음으로써 자신들의 힘과 우월함을 과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악행을 막기 위해 롯은 그들에게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7 절)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롯의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롯까지 해치려고 하였습니다.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9 절). 소돔 사람들은 롯을 밀치며 문을 부수려고 하였습니다.

1.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소돔 사람들에게 나그네는 보호하고 대접해야 할 이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짓밟고 모욕해도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낯선 도시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폭력과 학대를 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어도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외면하는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돔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돔의 최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소돔의 멸망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일어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오랫동안 자행되어 온 죄악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롯과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12 절). 심판이 임하기 전에 소돔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롯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곧바로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창세기 19 장 14 절을 보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14 절).

여러분, 롯은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신다고 하니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위들에게 달려가서 이 성을 떠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위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소돔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소돔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웃어넘기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롯 자신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곧바로 소돔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9 장 15 절을 보면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15 절).

그런데 16 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16 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천사들이 서둘러 떠나라고 재촉하는데도 롯은 지체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소돔에서 쌓아 온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만약 집에 불이 나서 나가야 한다면, 집안의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입니까? 이걸 가지고 나갈까 저걸 가지고 나갈까 고민하고 꾸물거리며 망설이다가는 불길에 휩싸여 죽을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롯은 그동안 소돔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16 하반절). 여러분, 롯이 소돔에서 구원받은 것은 롯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롯은 지체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롯이 스스로 떠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롯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2. 자비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드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돔을 떠났다면, 더 이상 소돔을 향해 마음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19 장 26 절을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26 절).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경고를 들었고,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성 밖으로 나오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바로 그날, 소돔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19 장 24 절과 25 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향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옅어 멸하셨더라”(24-25 절).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누리고 있던 풍족한 생활도, 그들이 자랑하던 도시도,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자신들의 마지막 날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뒤돌아보았던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과거의 삶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결국 소돔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두 딸, 세 명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어떻게 이러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창세기 19 장 29 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엮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엮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29 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롯이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 장인 창세기 18 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소돔을 위하여 간구하였습니다. 그 성에 의인 오십 명이 있다면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시겠느냐고 여쭙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흔다섯 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여쭙었습니다. 그리고 마흔 명, 서른 명, 스무 명, 마지막에는 열 명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까지 간구하였을까요?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랐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죄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롯을 향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이전에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간 소돔 사람들을 구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낯선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순히 자기 조카나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살려 달라는 기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들과 함께 그 성 전체를 멸망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지를 여쭙었습니다.

창세기 18 장 25 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창 18:25).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분이시며,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에는 의인 열 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중보하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9 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옆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창 19:29 하). 아브라함이 간구했던 대로 소돔 전체가 보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멸망 가운데서 건져 내셨습니다.

3. 중보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롯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히 간구했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돔에서 살아가던 롯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있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중보기도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우리의 기도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죄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 두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이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소돔의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돔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함으로써 쾌락을 삼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롯의 사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곳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소돔의 마지막 날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소돔 최후의 날을 언급하셨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눅 17:28-29).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소돔 사람들의 죄악을 나열하시기보다 그들이 살아가던 평범한 일상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는 평범한 일들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던 바로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소돔의 멸망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눅 17:30).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왜 수천 년 전에 멸망한 소돔을 말씀하셨을까요? 소돔의 최후를 통하여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도록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벧후 3:11 하-12 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